리바이어던, 도대체 넌 도대체 누구냐?
- 홉스의 어깨 위에서 '국가' 다시보기

"모든 정치사상은 그 사상을 배태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상가 자신의 역사적 경험과, 그 시대의 지적 유산을 반영한다."

- 퀜틴 스키너(Quentin Skinner),「사상사의 의미와 이해」-

1. 홉스가 살았던 세계 - 17세기 유럽과 잉글랜드와 시대 상황

홉스(1588~1679)는 자신의 출생과 더불어 운명처럼 한 평생 자신을 따라 다니는 '공포'의 극복에 주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홉스는,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잉글랜드로 침공해 온다는 공포로 어머니가 조산하는 바람에 칠삭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홉스는 자신의 출생 자체가 죽음의 공포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나는 공포와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술회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 그러나 한 평생 공포에 떨었다는 사람치고는, 당시로는 놀랍게 장수(長壽)했습니다. 그의 장수 비결은 아마도 식이요법과 꾸준히 운동이었지 싶습니다.

홉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자면, 그와 동명이었던 홉스 아버지, 홉스는 지방의 작은 교회의 목사였으나 홉스가 어린 시절에 다른 목사와 싸운 후에 고향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족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은, 종교에 대한 홉스의 회의(懷疑)[1]를 초래한 원초적 경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홉스 자신의 총기(聰氣)와 그것을 아는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홉스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그의 대학생활은 매우 지루한 체험이었나 봅니다. 그가 본 대학교수는, 본받고 싶다는 욕망을 자아내는 '교사'가 아니라 무익한 공리공론만을 일삼는 '반면교사'들뿐이었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내전의 원흉들 가운데 하나로 대학교수를 꼽은 이유 가운

---

1 홉스는 당대의 사회 혼란과 투쟁을 야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하나이나 큰 하나)로 '무모하고 소모적인' 종교적 논쟁을 꼽는다. 『리바이어던』 2부에는, 보이지 않은 영적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성직자(신학자)에 대한 홉스의 반감이 곳곳에 편재되어 있다. 하편, 이 원고의 작성에 활용한 주요 참고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김병곤,「홉스: 신 없는 절대주의」『시원으로의 회귀』; 김용환, 『리바이어던』(살림출판사) ; 문지영, 『로크 & 홉스』(김영사) ; 남경태, 『철학』 (들녘); 로저 트리그(최용철 역),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자작나무) ; C. B. 맥퍼슨(이유동 역),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인간사랑) ; 차하순 역, 『서양의 지적 전통』 (홍성사)

데 하나로 그의 대학생활의 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의 젊은 날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학 졸업 후에 당시 왕당파의 보루인 캐벤디쉬(W. Cavendish)가문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일입니다. 1608년 이후로, 홉스의 정치적 당파성은 줄곧 왕당파로 경사되었고, 1640년에는 일부 왕당파들과 함께 프랑스로 망명하여 (생명 보존을 위해 '비겁자'라는 평판을 기꺼이 감수하고 망망하여) 파리에서 왕자(후일 찰스 2세가 되는)의 수학교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홉스가 살았던 17세기는 역사학자들이 소위 "일반적 위기(general crisis)의 시대"라고 부르는 총체적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유럽은 위로는 '우주에서 지구의 위상'으로부터 아래로는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인간사(人間事)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사상 등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립과 갈등이 격화된 총체적 혼란의 시기였습니다.[2] 종교, 국가, 과학 그리고 사상 분야에서 **권위의 근거 그 자체가 완전히 회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급격하고도 전면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위기를 극복할 '비책'을 쉬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17세기 유럽의 지성들은 이러한 근거(기준)의 상실이란 도전에 새롭게 응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응전의 '핵**(核)**'은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사회, 종교 그리고 인간 속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 힘의 정체를 규명하고 나아가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홉스가 태어난 잉글랜드 역시 이런 현실적 위기와 지적 권위의 상실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유럽대륙보다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정치적-종교적 갈등과 적대적 대립이 커져서 결국에는 '잉글랜드 내전(1640~1660)'으로 비화되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왕당파와 의회파의 반복과 대립, 종교적으로 국교도[3]와 비국교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잉글랜드는 국왕 찰스 1세의 처형(1649)과 크롬웰의 공화정(Commonwealth of England)수립과 호국경(Lord Protector)

---

2 유럽 세계는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세적인 통일성을 급격히 상실했다. 가톨릭계는 비록 과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상실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맞서 새로운 종교적 신조를 내세운 프로테스탄트는 세력 확장을 위해서 (종교)전쟁도 불사하였다. 봉건제의 붕괴에도 불과하고 봉건귀족들은 집요하게 전통적인 특권을 고수하려고 했고, 새로 등장한 상인계층은 그런 귀족의 특권을 잠식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했으며, 군주들은 그들 사이에서 양자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확대시켰다. 하층민들은, 17세기 내내 빈발했던 기근, 역병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생존위기"에 직면하여, 폭동이나 반항을 통해서라도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가하면 종교재판과 서적 검열을 통한 과학철학에 대한 압박을 커졌지만 그런 혹독한 반동에도 불구하고 지구 중심의 세계관과 새로운 과학 이론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17세기 유럽 사회는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여러 이해집단 사이의 긴장과 투쟁, 폭력과 소요로 가득 찬 세계가 되었고, 거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세계였다.

3 영국의 국교도는 1534년 헨리 8세가 수장령(Act of Supremacy)을 선포하면서 수립한 영국 성공회의 신도를 말한다. 영국 성공회의 최고 수장은 전통적으로 영국의 국왕이었으며. (왕권이 교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영국적 전통은, 종교가 국왕(국가)의 절대적 권위 아래 종속되어야만 무질서를 질서(안정)로 바꿀 수 있다는 홉스의 견해의 역사-문화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치 그리고 다시 왕정복귀(1660)로 이어지는 사회-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유럽과 잉글랜드에서 벌어진 이런 혼란과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폭력과 죽음의 공포는, 홉스에게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리바이어던□에서**도**[4]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것의 극복(즉, 평화의 구축)은 책의 중심논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질러 말하는 셈입니다만, 여기서 홉스는 일종의 '사고의 실험'을 통해서 바라본 자연 상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인간이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감정**이자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강조합니다.[5]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폭력의 완전히 제거보다는 공포를 자아내는 **폭력의 정당한 통제**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나 시민사회에서나 누구도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시대의 무질서 때문에 계기가 되었지만, 어떤 편파성이나 요청 없이 오직 (왕의) 보호와 (백성의) 복종 사이의 상호 관계"[6]에 대해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평화에 대한 소중함**(정언명령과 다르지 않는 홉스의 제1 자연법은 바로 "평화를 추구하라"는 명령입니다)**을 일깨워줄 목적**으로 □리바이어던□의 집필에 나선 것입니다. ☞ 그가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말인 <자연상태>, <사회계약>, <자연법> 등과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론(Erastianism)>은 모두, 공포를 자아내는 폭력(전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홉스의 이론적 무장의 일환인 셈입니다.

2. 홉스의 기본 인식 - 방법론과 인간, 사회, 종교에 대한 이해

1) 홉스의 방법론 - '분해와 결합의 방법'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는 첫째 이유는 방법의 결핍에 있다: 70쪽)

자, 그럼, 공포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홉스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

---

4 『리바이어던』에 앞서 홉스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영어로 번역했고(1629), 1668~1670년에는 잉글랜드 내전의 원인을 다룬 역사서 『비히모스』를 저술했다. 이것은, 인간의 폭력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서 폭력과 그에 따른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김용환,「홉스의 힘의 정치철학 : 폭력과 통제」(『동서철학연구』, 29집) p. 117. 김용환의 이 논문은 한국 최초로, 폭력적인 힘의 통제 가능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홉스의 정치철학은 분석한 글이다.

5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라는 정치학자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홉스의 정치철학에서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야말로 모든 권리의 뿌리이며, 나아가 모든 도덕성의 근거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김용환, 앞의 논문 p. 115에서 재인용).

6 진석용, 『리바이어던 2』, IV, 47장.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에 주목합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우선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듯이, 인간끼리 서로 이리처럼 피 튀기게 싸우는 전쟁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을 알아낸다면, 문제 해결의 '비법'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란과 무질서라는 사회 현상을 야기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홉스가 혼란과 공포를 초래하는 사회변동의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소위 '분해와 결합의 방법'입니다.[7] 우리가 알다시피, 홉스가 살았던 17세기는 "과학혁명"이라고 불리는 과학상의 발전이 일어난 시대였고, 홉스도 당대 '과학철학'의 성과에 크게 고무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1629년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접한 이후로, '자명한 공리를 전제로 삼아 논리적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논증적 방법'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1636년에는 피렌체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던 갈릴레오를 만나러 갈 정도로, 그의 '가설-연역적 방법'의 수용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접근법을 익혀서 인간 행동 및 사회에 관한 연구에 제대로 적용한다면, 정치나 도덕의 문제에서도 기하학적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8] 그래서 홉스는 공포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서도, 공포를 야기하는 모든 현상을 그것의 궁극적인 구성요소로 환원하고 그로부터 복잡한 현상을 구성해내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는, 분해와 결합의 과정에서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없고, 논증적 설득만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상들을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부분으로 분해한 다음 엄밀한 추론의 과정을 거쳐 다시 결합하려고 시도하지요. 여기서 "가장 작은(궁극적인) 부분으로 분해"한다는 말은, 더 이상 논증이 요구되지 않는 공리를 찾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홉스의 경우 그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definition)하는 일이었습니다. ☞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새로운 장에서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 맨 먼저 개념들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의 독특한 서술기법일 뿐 아니라 분해와 결합의 방법론을 철저하게 구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홉스의 사유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운동 중인 물체**라는 관점입니다. 그는 물체(bodies)와 운동(motion)의 개념에 기초하여 자연과 인간 세계의 모든

---

7 14세기 초부터 의학연구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파듀아 대학의 방법론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로 과학 연구의 필수적인 두 가지 절차를 의미한다. 분해는 이미 알려진 결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결합은 반대로 알고 있는 원인으로부터 논증을 통해 결론으로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김용환,「토마스 홉스 : 보수적 이상주의자」 p. 157.

8 홉스는 사회(⊃국가)에 관하여 기하학과 같은 정도의 엄밀한 정치철학을 정립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정의와 공정, 그리고 반대로 불의와 불공정의 본질 인식을 위한 원리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즉, 법칙과 계약들 자체를 창조하기 때문이다."(나종석,「홉스의 정치철학과 고전적인 정치철학의 붕괴」, 『한국 사회와 다원주의』;272에서 재인용. 밑줄은 재인용자) 즉, 국가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고 창조한(조립한)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할 수도 있고, 다시 "조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상을 두루 설명하는 포괄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고, 자기의 정치철학도 이런 체계의 일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연적 물체(natural body→ 물리학), 인간의 몸(body→ 심리학), 그리고 인위적 물체로서의 사회(Commonwealth→ 정치철학)을 모두 운동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이나 자연철학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운동 개념을 심리학과 정치철학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홉스는 마음, 욕망, 혐오, 사랑과 미움, 자비와 희망 등의 심리적 정념도 운동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고 가자면, 홉스는 인간의 선/악도 정념과 관련지어서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즉 **선(善)이나 악(惡)은 애당초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그는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파악하거나 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벌써 당시에 그가 무신론자로 내몰렸을 것이라고 능히 예상할 수 있지요). 선/악이란 인간의 정념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선이고 증오하는 것은 악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선/악은 절대적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도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규정하거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이 상대적이듯이 정치이론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정치철학도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2) 홉스의 유물론적 인간이해

홉스는 인간도 특수한 종류의 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신체의 반영**이고, **신체는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삶이란 "사지(四肢)의 운동"에 불과하며, "감각이란 외부대상의 압력이 신체에 작용해서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현상"이라는 식으로 감각조차도 운동으로 설명합니다. **요컨대, 홉스에게 인간이란 '살아 움직이는 육체'(=물체)입니다.** 이처럼 유물론자인 홉스가,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에 비판적이었으리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이지요. 그는 '육체를 지닌 영혼'이란 있을 수 없듯이, 실제로 '육체 없는 영혼'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 육체(신체) 이외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일원론적 관점**은 데카르트의 '코기토'와는 상반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홉스가 인간을 육체(물질)로만 환원하는 자신의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의 생각, 그의 철학 자체도 신체의 운동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요. 여하튼 홉스는 세계를 물질세계로 국한시키면서 인간을 거의 기계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당대에 '무신론자'로 간주되고. '신성모독의 이단적 저술가'로 지목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리바이어던』은 1683년 교황에 의해 금서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앞에서, 홉스가 인간을 '특수한 종류의 물체'로 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특수함이란, 일

반 물체들과는 달리 사랑과 미움, 혐오, 명예욕과 자비심과 같은 정념, 즉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홉스의 관점에서 인간은 그런 본래적인 충동에 의해 운동을 계속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특수한 물체'입니다.[9] 홉스는 이런 본래적 욕망 가운데 특히 이기심에 주목해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자기보존(self preservation)을 최고의 선(善)으로 삼는 이기적인 개인**으로 파악합니다.[10] 홉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보호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 역시도 자기보존을 위한 이기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간의 이기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의 정념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며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영속적으로 보존하려는 모든 사람이 지닌 정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존재의) 보존을 방해하는 외부의 어떠한 도전에 대해서도 저항할 권리를, 자연은 인간에게 자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홉스는 타자란, 그(/그녀)가 자신의 생명 유지에 얼마나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수단적인 의미에서만 평가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필요나 평가에 의존해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예컨대, 홉스는 우정조차도 자기 안전에 유용하면 좋은 것으로, 위험을 초래하면 나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홉스의 인간관을 평가하자면, 그는 **인간-인간의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계산reckoning"이라는 도구적 이성의 관점에서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생각하는 홉스에게 '정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정나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홉스의 주장이 '기분 나쁜 주장'이라는

---

9 앞질러 말하는 것이지만, 홉스처럼 인간은 자기의 정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파악하게 되면, **인간의 정념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는 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게 된다. 이런 개인들(원자들)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집합을 자연 상태로 설정한 홉스의 비유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 원자들이 항상 운동하고 충돌하며 까딱하면 서로 상대방을 산산조각 내려하는 것처럼, 자연 상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홉스의 **철학**은 **정치학**이란 **상부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토대**로서 그의 사유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철학적 용어로 **홉스의 자연 상태**를 표현하면, 그것은 **기계적인 운동과 인간 본성의 작용만이 가득한 상태**이다. (한편, 홉스와 흔히 비교되는 로크는, 자연 상태를 원자들이 균형을 이루며 자체 조정적인 상태로 안정되어 있는 집합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균형을 깨는 침입자가 있거나 훼방꾼이 나오면 그것을 적절히 처리하여 자연 상태를 조정-안정시키는 일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10 홉스 연구자들 가운데는, 홉스가 "인간의 이기심을 하나의 과학적 토대에 입각한 행동 동기"로 삼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 그의 인간 이해의 새로움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조지 세이빈, 토머스 솔슨, 『정치사상사2』 701쪽). 그러나 홉스가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강조한 유일한 17세기 사람은 아니다. 아니, 17세기의 기준으로 볼 때, 홉스는 인간성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매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선함을 믿지 않았다. 신학자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청교도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홉스보다 훨씬 더 나쁘게 생각했다(라고 존 플라메나츠라는 학자는 언술한다).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실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도 마치 '나의 몸값(가격)'이 '나 자신의 가치'를 말해주기라도 하는 양, 자연스럽게 (네) 연봉이 얼마냐고 묻는 사회에 삽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자신도 타산적-계산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사람과 세계를 보고, 그걸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건 아닌가요?

그러나 홉스가 인간의 자기보존을 강조하고 이해-타산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했다고 해서 곧장 그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기주의적 인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적어도 자기 파멸을 피하고 자기 보존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자와의 공존이 필요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자비', '동정심', '자선' 등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선한 것들이라고 언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홉스가 인간의 이기성에 주목한 것은, 인간은 '순도 100%의 이기심만으로 이루어진 물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심이 인간의 여타 본성에 비해서 우세한 힘을 발휘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11]

사실, 인간에게는 이기적 속성이 있으며 그것이 중요한 행위동인이라는 점을 일단 인정할 때, 인간은 자신의 행위준칙(도덕규칙)을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를 느끼거나 깨닫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인간으로서" 자신의 (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륜성(Sittlichkeit)을 고양하기 위해서 노력할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3) 홉스가 본 개인-사회의 관계

17세기의 과학 철학의 성과에 크게 고무된 홉스는 과학이 물질의 구성요소를 미세한 원자로 보았듯이,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원자론적인 견해를 취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홉스의 "인간"이해라는 표현을 편의상 사용했지만, 홉스 자신은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요소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개별자와 그 이름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

11 이기심과 관련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부연한다. 이기심은(/이타심도) 개인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본능/천성이므로 그 자체에 대해서 선/악을 부여할 수 없다. 특히 이기심을 일차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망이라고 규정할 경우에, 그것은 생물적 생명체로서 인간이 DNA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선/악을 따질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나쁜 DNA, 좋은 DNA라는 말을 (비유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홉스는, 자기보존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첫째 임무이므로 자기보존을 위한 이기주의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준 사람이다. 법에서도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모든 이기주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떤 이기주의는 나쁘고, 어떤 이기주의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의 구체적 상황이다. 이기주의의 작용이 인간의 사회적 공동생활에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이기주의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즉. 타인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동등한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기주의는 악(evil)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로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홉스의 인간 이해는 <인간이란 이기심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심도 지닌 존재>라는 냉엄한 사실을 보여준다.

지요. 그는 "이름 붙여진 사물들은 모두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존재인 개인들로 구성되는 (자연 상태의) 대중은 고유한 정치적 실재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홉스는 이처럼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 성립이후의 사회를 조망하기 위해서, 일단 현실의 사회 상태를 '사고실험을 통해서**(역사적 상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설적 상황으로 설정한)**' 자연 상태라는 그 원자론적 구성부분으로 일단 해체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연 상태라는 원초적 상태에서의 인간의 조건과 삶을 차근차근 재구성(조립)해 나가는 식으로 현실 사회를 진단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사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지요).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달리 말하면, 누구나 자기 욕망에 따라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지내던 사람들이 지속적인 생명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한 국가의 구성에 동의한 것이라는 홉스의 주장에는, 인간은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사회에 앞서서 존재했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홉스의 전제에는,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홉스에 의하면, 국가라는 '물질'은 개인이라는 '원자'로 구성된 인공적인 제도입니다.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인한 항상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처해 있는 인간들이 평화와 안전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철두철미하게 인간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정치적 질서입니다. 중요하니까, 비유적으로 한 번 더 말하자면, **인간이 비록 자연의 창조자는 아닐지라도,** 국가가 인간의 의사와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창조자는 인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홉스의 국가관은, 국가를 인간의 사회적 본성의 실현이라는 목적이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질서라고 보는 고전고대의 국가관과 분명하게 갈라섭니다. 국가의 참다운 기초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리적인 이기주의'**이며, 국가는 선차적으로 존재한 각 개인들의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존립하는 **도구**라는 생각은 이후에 서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인간의 "비사회적 존재로서의 사회성"을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고전 정치철학과 달리, 인간이 본성상 사회적이라는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 홉스로서는 도대체 인간은 왜 사회를 이루어 왔고, 계속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리바이어던□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4) 홉스의 종교에 관한 이해 –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없다.

앞에서도 잠깐 언술했습니다만, 홉스는 무형의 실체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았지요. 신(神)과 관련해서도, 홉스는 중세의 실재론자들이 신을 유형의 실재로 잘못 파악한 탓에 잘못된 신학이 주류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신도

무형의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형의 존재인 신의 본질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능력(inability)도 없고, 파악도 불가능하다(incomprehensibility)고 보기 때문에(『리바이어던』 3장), 마키아벨리와 마찬가지로 홉스도 종교의 의미를 그 내용의 진리성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한 인간본성에 뿌리박은 무법자적인 행동을 억누르는 데 유용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신학의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 내에 존재하는 교회와, **'밖으로 나타나는'** 예배 등과 같은 종교행위나 교인들의 모임은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면서 신앙행위에 대한 세속적 통치권의 우위를 내세웠습니다.[12] 종교와 관련하여 그는 좀더 '위험한' 발언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두려움이 공적으로 인정될 때 종교이고, 그렇지 않을 때 미신이 된다"고까지 말한 것이지요. 정통/이단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믿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말은, 원래 정통이란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지요. ☞ 홉스의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종교나 미신이나 똑같다가 아니라 소위 "정통"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잘못이나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인식을 해야 한다는 발상이겠지요.

3. 『리바이어던□의 세계 - 홉스의 '사고의 실험'

1) 자연 상태(사회 이전의 상태), 자연권, 자연법 - 서로 간의 계약에 의거한 자연권의 상호 포기

앞서 언술했듯이 홉스는, 인간은 자기보호, 즉 자신의 생명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죽음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존재(☞최인훈 선생의 표현으로는 "생물적 DNA"의 생체항상성의 보유자)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홉스가 보기에, 생존을 위한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지극히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행위이지 결코 부도덕한 게 아닙니다. 홉스는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합니다. 즉,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홉스는 그것을 자연권이라고 명명한 후, **자기보존의 목적이라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권리**로 설명합니다. ☞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권을 누린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권리의 평등을 누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평등은 누구라도 타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자연적

---

12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하여 사회계약을 통해서 **창조한** 제도가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자가 군주이기에, **군주의 권위는 결코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는 신학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홉스는 보았다. 특히, 홉스에게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종교해석을 정치, 사회이론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모든 사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권리와 힘의 평등한 조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치명적 평등(fatal equalit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왜냐하면, 누구나 자연권을 지니고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만고만한 능력을 소유한 인간들이 **절대적 자유를 구가**한다면, 인간은 늘 죽음과 폭력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14] 결국, 모든 인간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쫓아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연 상태**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모든 사람들 떨게 하는 공통의 권력(common powers)이 없는” 자연 상태는,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 모두를 상대로 싸워야(War of all against all) 하는 **무정부상태**이므로, 이런 상태의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고, 참혹하고 잔인하며 그나마 더욱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유명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15] 이런 점을 감안하면, “치명적 평등”의 상황이란, ‘조건의 평등’이 ‘희망의 평등’을 낳고, ‘희망의 평등’은 자연 상태에서 폭력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매우 “**취약한 평등**”의 상황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권력(힘)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자 힘의 획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해 주는 자연권이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궁극적 심판자이고, 저마다의 이해와 판단의 충돌과 투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응당 이런 비극적 상황을 종식하고 자연 상태를 벗어날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홉스는 그런 방도가 바로 계약이라고 봅니다. **평등한 권리주체가** 생존에 필요한 사물에 대한 권리를 ‘무제약적으로’ 행사할 때 생기는 **투쟁 상태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서로의 권리를 승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지요.(☞ 별 특별하달 것도 없는 주장 같아 보지만, 권리가 불평등할 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평등한 권리주체”라는 발상은 얼마나 위험해 보였겠습니까!) 따라서 홉스에게 계약이란 인간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 개체의 자연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성적 깨달음의 산물입니다. 그는 자연 상태를 통제하는 그런 **이성적 깨달음의 명령**을, **자연법**(자기 생명의 보존에 적합한 행위나 어긋나는 행위에 관해 “인간이 이성이 찾아낸 계율 혹은 일반적 규

---

13 Gabrilla Slomp, Thomas Hobbes and the Political Philosophy of Glory(2000), p. 22. 김용환, 「홉스의 힘의 정치철학」 p. 123에서 재인용.

14 홉스는 상시적인 전쟁상태로 돌입하도록 자극하는 힘으로 인간의 정념을 들고 있다. 궁극적으로 힘에 대한 욕망으로 귀결되는, **경쟁(competition), 불신(diffidence), 공명심(glory)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 폭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5 그러나 홉스의 진술과는 달리, 역사는 비록 인간을 슬프게 하거나 노하게는 할지언정, 공포와 잔인 일변도로만 나가진 않았다. 당장 홉스만 해도, 그런 자연 상태(타락한 사회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어떻게 90세가 넘도록 장수를 할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그처럼 능히 장수를 꿈꿀 수 있다!

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연법이란 **인간의 합리적인 자기 이익 추구의 산물로서** 자연권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2) 국가의 조직 원리를 설명하는 사회계약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성을 발동시켜서 그럴듯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계약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힘(권력)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해관계의 분립과 상호 간의 불신에 따른 분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이성이 내리는 명령"도 **합의**를 지속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 권력**이 없으면 무력합니다.[16] 홉스의 저 유명한 비유를 빌자면, "칼(sword) 없는 계약은 단지 말(word)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홉스는 계약의 준수 자체를 정의와 연결시킬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대 이전의 정의관에서 중요한 것은 교환하는 사물의 가치가 등가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홉스는 정의를 등가교환이 아니라 계약의 준수 여하에서 찾습니다. 교환하는 사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동일한가, 아닌가는 개인의 주관적 선택에 맡기고, 오로지 그런 교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의 준수>,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초는 평화의 유지(물론, 국가의 절대적 힘에 의한!)를 정의로운 것으로 봅니다. 그가 주권을 절대화한 것도,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불의가 판을 칠 터이니까요. 이러한 홉스의 사회계약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에 호소하지도 않고, 또 영원히 타당한 것으로 전제되는 자연의 질서에 기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착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합의**의 절차에 의해서 일정한 원칙에 이르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적 자극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유의할 점은,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를 성립시킨 **역사적** 원인이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탄생과정'이 아니라 '**국가의 조직 원리**'입니다. 즉,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만인의 이익을 위해 사회가(국가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사고 실험의 산물입니다. (한편, 최인훈 선생의 사회계약에 관한 촌철살인의 한 말씀도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용기 있는 이기주의자들의 동맹, 그것이 사회계약이다."**)

3) 국가의 존재 이유 – '천하무적' 리바이어던의 횡포보다도 무정부상태가 더 나쁘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구성원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그렇다고 국가를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국가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통치기구라기보다는 인간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차선책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성서에 등장하는 괴물의 이름으로 국가의 별칭을 지었겠습니까?

---

16 주의할 점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홉스는 <인간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권력(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다.

무정부적인 자연 상태의 공포를 겪느니 **차라리**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17](식민지 지배를 겪어본 역사의 후손이어서 그런지, 비록 못난 정부일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설사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라 해도, 국민들에게 그것을 타도할 권리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첫 번째 군주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권한을 전부 행사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를 형성하는 데 능동적 주체로서 적극 참여했던 개인이 역설적으로 국가 수립 후에는 단순한 통치의 대상으로, 즉 피치자(被治者)이며 수동적 객체로 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홉스의 세계'에서 군주의 권한은 무제한적입니다.[18] 설령 그가 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군주는 법을 제정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홉스에게는 삼권분립의 발상이 없습니다). 의회도 군주의 권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군주도 부패할 수 있듯이, 의회도 마찬가지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홉스는, 어차피 지배층에게 완벽한 도덕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의회처럼 여러 사람이 부패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군주 한 사람의 부패가 차라리 덜하지 않겠는가, 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국왕 한 사람으로 국한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홉스는 자기중심적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해방하고, 자기보존을 유일한 궁극적인 가치원리로 규정했다. 그리고 개개인의 자유로운 주관적 선택에 입각한 교환-계약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원리(자연법)와, 그 강제 권력으로서 국가의 면모를 명확하게 그려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1회 강연에서 언급했듯이, 홉스는 마키아벨리와는 달리, 주권 개념을 사용합니다. 비록 절대군주제를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 주권의 기초를 '국민의 자기 보존권'에 두고 있거든요). 당연한 말입니다만, 이런 홉스의 견해가 보편타당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사회에서는 여전히 설득력을 발휘한다고 평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 예컨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은 섬뜩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과연 현대인(아니, 한국인)은 <인간에 대한 늑대>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존재라고 거리낌 없이 자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능력에

---

17 이런 점에서 홉스는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평할 수 있다. 그가 절대주의를 신봉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부르주아의 잠재력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불완전하나마 의회민주주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성립되는 것을 보려면, 9년을 더 살아야 했다! 비록 소설 속에서지만 가장 완벽한 인간에 제일 근접한 제갈공명조차도 실패한 수명연장이 아닌가!

18 여기도 오해하기 쉬운 대목인데, 홉스가 부인한 것은 통치권의 신적인 기원(왕권신수설)이지 통치권의 절대성이 아니다. 이것은 군주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과 무관한 제3자로서 '갑-을'의 관계에서 나오는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구적인 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아니, 위안이라도 된다면, 글로벌) 경쟁 상태와 홉스의 자연 상태가 그리 크게 다른 걸까요?

4. 홉스의 어깨 위에서 세상읽기 - 그의 눈에 비친 17세기, 나의 눈에 비친 21세기

1)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발상의 전환점

-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

홉스는 국가를 순전히 **비인격적인 권위**로 보는 근대 국가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사상가입니다. 홉스 이후로 <왕으로 상징되는 개인적 인격체>와 <국가 그 자체>는 구분되었습니다. 즉, <짐이 곧 국가라는 발상>이나 <하나의 왕조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국가관은 낡은 것(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만) 전근대적인 국가관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19] 무엇보다도 홉스의 등장 이후 유럽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에 앞서 국가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보다 먼저 존재했고(개인의 선차성), 개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 합의하여 만든 인위적인 구성물이 국가이므로,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정치권력의 주체이자 그 자체로 국가였던 시절에, 홉스는 <개인들의 계약에 의한 국가의 탄생>, <동의에 의한 정치권력의 수립>이란 발상을 가시화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의 사상적 토대를 놓았습니다.[20] 또한 홉스는 군주(국가)에 대한 복종과 충성이,

---

19 **홉스는** 주권을 인격이라고 칭하고 남성 일반을 나타내는 대명사 he로 표현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주권 개념은 일차적으로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왕은 주권의 원천이 아니라 이미 창출된 주권의 담지자**에 불과하다. 홉스의 표현을 빌면, **리바이어던은 actor이고 신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의 author이다.** 한편, 왕권신수설과 관련하여 남경태 선생이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지어 이야기한 대목을 소개한다.(스튜어트 왕조의 문이 열린 1603년은 조선에서 임진란 이후 논공행상이 한창이던 때다. 그 때 선조랑 함께 의주까지 도망친 88명이 1등 무공훈장에 해당되는 호성공신에, 이순신을 포함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무신들 18명은 2등급에 해당되는 선무공신에 봉해졌다. 지금으로 보면 임금이 백성들의 안위는 돌보지도 않고 내뺐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될 수없는 일이지만, 그러고도 왕조를 타도하려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백성들의 '참을성'이라니! 그런데 조선 왕조의 근본을 보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선은 원래 사직의 존립을 최우선시 하는 국체이며, 온 백성이 죽어나가도 사직을 대표하는 국왕만큼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반민주성의 국체이기 때문이다. **영토와 백성보다 군주가 우선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왕권신수설의 생생한 역사적 실례일 것**이다(남경태, 『철학□ pp. 250-251). 그 시절 잉글랜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 약과라고? 그럼 20세기인 1950년에 벌어진 이승만의 한강 인도교 폭파는 어떤가, 그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부(國父)로 모셔야 한다고?

20 문지영, 『홉스&로크□(김영사), pp. 28~32. 참, **영국사상사에서 홉스는 영어로 철학은 시도한 최초의 인**

시민들의 이익과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도덕적 성실함과 무관하게, 국가의 유용성 때문에 국가의 존립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홉스의 세계'에서 국가는 그 어떤 **도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국가에 대한 비이기적 헌신과 봉사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아, 이렇게 써놓고 보니 이제야 알 듯 합니다. 서양의 근대 국가들이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을 그토록 '섬긴' 이유를! 18세기 이래, 근대 국가(주의자들)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에게서 국가에 대한 비이기적 헌신과 충성을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대 국가들은 너나없이 전쟁 영웅을 창조해내고 훈장을 수여하며, 승전비와 개선문을 건립하고, 국가와 민족의 위대함과 영광을 부각시키는 역사를 교육했습니다(이제는 스포츠경기에서의 메달 경쟁을 적절히 활용했고, 하려고 하지요). 국가와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려는 이런 집요한 '신화창조'의 이면에는 국가의 부족한 도덕성을 채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2)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사회는 언제나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홉스의 '사회계약 모델'은 사실상 경제학자의 순수한 '시장경제 개념'과 썩 닮아 있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각 개인의 선택을 집합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이지요. '합리적 경제인'이란 개념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자를 가리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이익과 가장 적은 피해를 줄 것으로 여겨지는 선택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홉스가 본 세계도 그런 합리적 이기주의자들의 세계입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지속적인 자기 이익의 추구가, 결국에는 그런 합의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사회**에서[21] 성실, 정직, 신뢰, 충성은 제한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홉스가 '감시와 처벌의 효율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이런 그의 전언을 경멸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경멸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사회는 언제나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드러냈다고 해서 홉스가 냉혈한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곤경에서 벗어날 방도를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딜레마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해결하려

물이라는 의의도 있다. 또한 홉스는 <통치>란 베일에 가려진 신성한 제도로서 경험을 초월한 것이거나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통치>를 합리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마키아벨리가 (그 동안) 정치이론의 토대로 작용했던 신학을 제거했다면, 홉스는 마키아벨리의 그런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거기에 '과학적 방법'을 새로 추가했다. 즉 17세기 자연과학의 여러 가지 발견과 방법을 정치학 연구에 도입하였고,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까지도 시도함으로써 '사회 **과학**'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 널리 알려진 "공유지의 비극"이야기나 군비감축에 대한 합의의 경우 등을 예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 노력한 홉스의 태도에 주목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얼마나 정직하게 직시하고 있는가를 견줘가면서!

3) 홉스 식의 개인주의의 역설!

홉스는 평등한 합리적 개인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인간은 자기 외부의 어떤 힘에 완전히 복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개인주의의 역설은 기실 **홉스 자신의 이론적 모순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사회의 역설까지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경제외적 강제로부터의 해방). 시장은 자신의 효율적 운동을 위해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독립된 합리적 결정은, 다시 그들 각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1929년의 대공황을 상기해 보시면!). 모든 인간의 선택은 시장을 조건지우고, 동시에 각 개인의 선택은 시장에 의해 조건 지워집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맥퍼슨은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라는 책에서, 홉스가 소유적 시장사회의 자유와 강제를 동시에 포착했다는 점에서 당대인들 가운데 근대 사회의 속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22]

4) 두 개의 보충

① 홉스의 주장에 대한 로크의 유명한 비판

“인간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법률의 구속 하에 있어야 하지만 그 한 사람만은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모든 자유를 여전히 보유할 뿐만 아니라

22 맥퍼슨,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p. 151. 한편, 맥퍼슨은 홉스의 자연 상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논평을 남겼다. 그것을 간단히 소개한다(pp. 45~58쪽). ① 홉스가 말하는 <인간의 자연적 조건>은 문명인에 반하는 자연적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수한 형식으로 욕구가 개발된 인간에 관한 것이다. 자연 상태란 하나의 가설적 조건, 즉 문명사회의 삶을 통해 형성되는 일정한 속성을 갖게 된 현재적 인간이, 모든 사람을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것으로 발견하게 될 그러한 가설적 조건이다. 또한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의 인간도,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추상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표현에 현혹되어서 홉스의 자연 상태가 모든 사회적 특성과 유리된 인간, 또는 원시인에 대한 분석인양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②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홉스의 묘사는 사실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 있는 인간의 분석”이다. 경쟁심, 불신, 공명심 등은 사회적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권력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즉, 현존하는 시민사회에서 역사적으로 획득되는 인간성에 대한 그의 이해에 의존해서 ‘자연 상태의 인간’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홉스의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묘사는 사실상 문명화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묘사로 보아야 한다. 또한 ③ 홉스가 제시한 이런 가정들은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종류의 사회(맥퍼슨의 입장에서는, 소유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시장 자본주의사회)에만 적용된다.

그것을 권력에 의해서 증대시키고 또 무절제하게 사용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란, 인간이 스컹크나 여우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을 하면서도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데는 만족하거나, 아니 심지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다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로크 『통치론』 7장 93절 ☞ 로크는 위 단락에서 서로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돌봐 줄 전능한 통치자를 신뢰하리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작은 문제지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전쟁상태를 멈추고 평화적으로 모이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홉스에 대한 비판은 국가나 군주가 타락하여 제도적으로 폭력화되는 경우를 홉스가 예상하지 못했다(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② 『리바이어던』 초판 표지의 그림(홉스의 친구이며 당대 최고의 도안가인 Wenceslaus Holler의 도안이라는 설도 있는)을 보신 적이 있나요? ☞ 도해(圖解) 필요하신 분은 김용환, 『리바이어던』 pp.100~103을 읽어 보세요. 사실, 표지 그림 한 장에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통째로 다 들어있습니다.